대학생 전법, '학생 · 교수 · 법사' 핵심 인력 양성부터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 워크숍
권역 그룹 토론 결과 살펴보니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신중일 기자

1박 2일 동안 400여 출 · 재가 대중이 대학생 전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댔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9월 5~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모인 출 · 재가 전법위원들은 지역별로 6개 그룹으로 나눠 '대학생은 무엇을 원하는가' '대학생 전법 이렇게 하자'를 주제로 2차례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법위원들은 △생활과 접목 가능한 불교 콘텐츠 △체계적인 동아리 운영지원 방안 △대학생과 함께하는 대중공사 정례화 △핵심 인재 발굴 · 육성 전략 △홍보 · 마케팅 전략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9월 6일 오후에는 권역별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개 권역 전법위원들은 공통적으로 대학생 전법을 이끌 핵심 인력인 '키맨(Key-Man)'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 경기 그룹 전법위원들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법 기반 마련을 위해 종법 입법을 통해 지도법사의 안정적 지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1인 위주의 지도법사 체제를 2~3인 체제로 구성해 공백을 최소하고 임기를 4년 내외로 보장해 학생과의 신뢰 ·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구니중앙종회의원, 군종, 셀럽 스님까지 아우른 강원 · 제주 그룹은 전국 대학 불교학생회 회장단 임원 연수를 통해 집중 교육하고 상호 교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핵심 인재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문 자격증 개발로 분야별 인재를 키우고,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불교 정서 프로그램 개발 · 지원을 강조했다.

부산 · 경남 그룹 전법위원은 "지도법사, 지도교수, 회장단의 체계적 양성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동아리 회장단 정기연수 △사찰 불자 자녀 활용해 학생 키맨 발굴 △지역 대학 우수 불교 동아리 사례 홍보 및 지도교수 유입 등을 제안했다.

대구 · 경북 그룹은 △불자교수 인프라 확보 △불교 동아리 회장 지원 강화 △지도법사 지원 강화를 전법 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구 · 경북 전법위원들은 "지역 대학 불자교수를 조사 · 관리하고 이들이 지도교수로 동아리를 창립 · 운영토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또한 학생 간 유대를 이끌 회장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일선 사찰들은 무료 템플스테이, 장학제도 등을 통해 지도법사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 그룹도 우수한 장학생을 선발하고 포교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할 것을 지원했다. 또한 안정적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졸업 후에도 후배를 지원할 수 있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9월 5~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에서 권역별, 교구별 전법 계획 발표가 이뤄지고 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전법위원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메모를 하고 있다.

전법 이끌 '키맨' 발굴 공감대
새로운 전법 방식 개발 필요
지속적 재원으로 장학 지원을
비구니 전법위원 확대 제안도



유정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이 워크숍 참여 소회를 밝히고 있다.

권역마다 톡톡 튀는 전법 아이디어들도 쏟아졌다. 서울 · 경기 그룹은 종단 간 협력(One Team)을 통한 공통된 전략(One Skill)을 세워 전법과 기본에 충실한 포교를 강조했다. 대구 · 경북 그룹은 1스님-1대학생 매칭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불교 포교를 위한 키맨을 육성하고 사찰별 연등기도금 중 1~3%를 청년불자육성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도화해 안정적 재원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공모전을 통한 전법도 공통된 방안이었다. 부산 · 경남 그룹은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엠블럼, 캐릭터 제작 관련 대학생 공모전을 제안했다.

강원 · 제주 그룹은 대학생에 특화된 공모전 및 축제와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 공간에 통합 동아리 공간 신설 및 활동 등을 홍보 · 마케팅 전략으로 내놨다. 호남 그룹은 웹툰 등을 통한 마케팅과 이것이 없을 경우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워크숍에서는 '1본사-1대학' 지원을 전법 기조로 내세운 교구본사별 전법 계획 발표도 이어졌다. 대부분의 교구들이 1개 대학 지원을 기본으로 최대 4개 대학의 동아리 건립 지원을 천명했다.

제3교구본사 신흥사는 강원대와 한림대를 중점 지원 대학으로 선정하고 대학 법회 정례화, 연합 행사 및 강원 파라미타 연계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기존 대학의 불교학생회에 춘천교대, 한림성심대 동아리 창립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단을 만들어 전법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전법 예산을 3000만원 책정해 불자교수 발굴과 강원대 강릉 · 원주 · 삼척캠퍼스 불교 동아리 설립을 추진하며 제5교구본사 법주사는 충북대, 청주교대 등 4개 대학에 불교학생회를 설립키로 했다. 제6교구 마곡사는 공주대 불자교수회 창립을 시작으로 단국대 천안캠퍼스, 세종 한국영상대, 아산 순천향대에 불교학생회를 올해 중으로 창립할 계획이다.

제9교구 동화사는 대구 권역 대학교 전법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전법을 추진할지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15교구 통도사는 영산대 불교학생회를 창립하며 지역 대학생들에게 무료 템플스테이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17교구본사 금산사는 3000만원의 전법 예산을 마련하고 전주대, 전주교대, 원광대에 불교 동아리를 창립하며, 제18교구 백양사는 광주여대와 동신대에 불교 동아리 창립을 추진 중에 있다.

제25교구 봉선사는 신임주지 후보로 선출된 호산 스님을 중심으로 청년 등 계층법회 활성화, 광릉수목원 천년의 숲 걷기 명상, 대학생 대상 템플스테이 무료 개방(월1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구니중앙종회의원들이 참여한 비구니전법위원들의 계획도 발표됐다. 대표해 계획을 발표한 정운 스님은 "9월 18일 새로운 전국비구니회장 스님을 선출하고 집행부가 새로 꾸려진다. 현재 전국비구니회에는 19개의 지회가 있다. 이 조직을 활용한다면 대학생 전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법위원 내 비구니 위원이 현저히 적다. 지회장과 논의해 새로운 비구니 전법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비구니 위원이 확대 · 구성된다면 각자의 지회에서 대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학생 전법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역별 토론회 말 말 말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고,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등 불교권 국가 유학생들이다. 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서 지원에 신경을 쓰는데, 종단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 제안하면 재정 지원부터 불교 포교까지 가능해질 것이다."
– 해동 스님(신구대 불교동아리 '불똥별' 지도법사)

"지난 3월 포교원과 대학생 전법단과 함께 홍대선원에서 불교 동아리 회장 3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아카데미'를 진행했고, 많은 호응이 있었다. 당시 서울대 불교학생회장은 휴학계를 내고 홍대선원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고, 경북대 불교학생회장도 전법 발심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한정된 재원을 중구난방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회장, 회장단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준한 스님('저스트 비' 홍대선원 주지)**

"MZ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이었다. 따뜻하게 바라봐주며 어깨 한번 토닥여주는 것으로 힘을 얻어 그들은 살아가더라. 너무 많은 프로그램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스님의 지혜를 전해주는 기본적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 혜원 스님(조계사 템플스테이 국장)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내에 통합 불교 동아리 공간을 만들고 이 안에 법우, 대학간 정보를 나누고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한다. 활성화되면 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좋을 것이다."
– 밀엄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성정이 투박해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일반인들은 스님들을 거부감을 가진 상태로 대한다, 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된다. 말로만 위급하다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스님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
– 보선 스님(수원사)

"대학생들에게 불교는 어렵고 고리타분한 이미지가 강하다. 이를 해소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교리 강의보다는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스님과의 차담 등의 기회를 대학생들에게 제공해달라."
– 유정현(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